유아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선형연구 고찰
- 한국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적 접근에서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박현진·김숙자**
한국교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유아 인성교육 관련 선형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문대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아 인성교육 관련 선형연구들로 '유아 인성', '유아 인성교육'을 검색하여 수집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기타 자료 등 총 128편이다. 수집한 문헌들은 우선 유아 인성교육의 전반적 현황을 위해 인도법 연구논문의 유형, 유형별 연구논문의 분포, 주제별 연구논문의 분포와 번도로 연구논문의 분포 및 주요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유아 인성교육 관련 연구 내용을 유아 인성교육의 주제, 유아 인성교육의 기본방향과 목적, 유아 인성교육 내용체계와 구성내용, 유아 인성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도대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인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목적, 내용, 교수-학습방법을 추출하여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유아 인성교육

I. 서론

 인간은 고립되어 흥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산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함께 인간을 살아간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공학, 심리학,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은 과연 인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런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말한다. 한 개인과 집단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회학자 Cooley(1902)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Adam Smith의 사상을 '인간의 본성과 사회절서에, 소개하면서 한 개인이 자기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 기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Cooley의 사회적인 자기, 반영된 자기의 개념은 Mead(1934)의 상호작용론에 이어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고, Mead는 자기개념이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에 의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기개념이 생기는 것도 타인에 의해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단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B00562)
** 교신저자: ksjkjun@knu.ac.kr / 011-1706-0584
가능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McKinnon(2005)은 자신에게 맞추려운 인성을(character)을 형성하기 위해 전형적인 인간의 활동을 잘 실천할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인의 모습, 전언적 인간의 종합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인성을 갖추기 위해 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한 개인과 그들 둘러싼 환경 간에 인적적 관계, 상호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인성(person)은 ‘사람됨’이라는 사적뇌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학문적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의 차이를 다소 보인다. 인성의 영어식 표현은 ‘personality’와 ‘character’로 두 어원이 서로 다른 의미를 잇는다. 


발달심리학자인 Berkowitz(2002)는 인성(character)의 의미를 인성을 도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상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characteristics)을 지닌 세로 ‘복잡한 것’이라는 있다. 인성이 옳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는 특성들 즉 도덕적 가치, 도덕적 행동,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상, 도덕적 성격, 도덕적 전체가 그러고 기초적 특성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격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인성(personality)과 철학적, 윤리학적 관점들을 포함하는 인성(character)을 보다 상위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이라는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인성의 개념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철학적 또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성이란 생략적인 것으로 생애 초기에 형성되며(Berkowitz & Grych, 1998), 서서히 형성된 사과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인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는 당위성을 갖는다. 사실 인성교육은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앞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주제이다. 교육의 목적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인성을 길러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목표는 곧 교육의 목적이 된다. 특히 교과의 특유한 구별 없이 동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유아교육에서 인성교육과 지식위주 교육의 구분이 도입되기 때문에 유아교육 자체 또한 인성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설립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인성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언제가 강조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동의인의’에 일본과 긴밀한 연령 및 그 범위.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인성교육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심리적안’의 인성교육